



부처님 가르침 이야기책 읽듯 술~술

전재성 박사 '앙갓따라니까야' 4권 발간...생략된 경구 최초로 복원 번역

이야기를 예로 들며 일상에서의 우리들의 자세를 재미있게 꼬집고 있다. <앙갓따라니까야>가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놀람게도 남녀 간의 문제다.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여자보다 더한 것이 없고,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는 남자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성욕의 문제를 성찰한다.

니까야(Nikāya)는 부류(部類)·부파(部派)로 번역되는 말로, 석가모니 입멸 후 약 100년 간 부처님 가르침이 경장(經藏)으로 집대성되는데, 이후 교단이 여러 부파로 분열되면서 각 부파마다 성전을 갖게 되며, 이 가운데 남방 상좌부의 경장이 바로 니까야다.

니까야는 초기불교경전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디가니까야>는 <장야합경>, <맛지마니까야>는 <중야합경>, <쌍웃따니까야>는 <잡야합경>, <앙갓따라니까야>는 <중야합경>에 상응하며, <룻따카

니까야>는 <법구경> <본생담> 등으로 한역돼 있다. 이들 5부 니까야는 부처님의 가르침 원형 그대로를 담고 있는데다, 일상의 교훈이 되는 내용이 풍부하고 부처님의 인간미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

이 중 <앙갓따라니까야>는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수행 방법 또한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재가신도의 일상적인 관심과 연관된 심리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전재성(한국불교알리성전협회 대표)·사진 박사가 2년여 준비 끝에 선보인 <앙



앙갓따라니까야 1·2·3·4권
전재성 역주 | 한국불교알리성전협회
각권 2만5000~3만5000원

갓따라니까야 1·2·3·4권은 전 11권 가운데 일부다.

한꺼번에 4권을 내놓았다는 것도 그렇지만, 1500여 개나 되는 경전이름을 일일이 밝히고, 원전 자체에서 생략돼 있는 경구를 복원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저자인 전

재성 박사가 책 표

지에 '세계최초완전복원번역'이라는 수식어를 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니까야를 읽는 맛은 부처님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데 있다. 한역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된 경전과는 현장감이 다르다. 게다가 한역과 우리말 번역을 거치면서 생긴 오류를 답습하지 않게 되니 이 또한 니까야를 읽는 이점이다.

니까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딱딱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지만 막상 니까야를 펼치면 생각이 달라진다. 중학생 정도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문장이 쉽고, 게다가 대화체여서 마치 쉽게 대화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 책이 갖는 출판·학술적 의미를 따지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니까야를 읽는 것이다. 그것도 재미있게... 한 번 손에 잡으면 마치 이야기책을 읽듯 술술 읽어 내려갈 수 있다.

<앙갓따라니까야>와 함께 선보인 개정증보판 <쌍웃따니까야> 1, 2권은 초역본에서 5권을 임의로 11권으로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전재성 박사는 "나머지 5~11권까지의 <앙갓따라니까야>는 올해 안으로 완역 예정이며, 많은 불자들이 니까야의 가치를 느껴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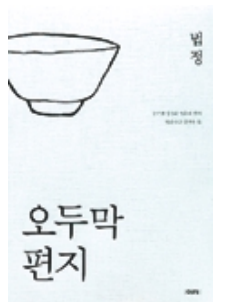
"수행승들이여, 예를 들어 머느리가 시집오면, 바로 그날 밤이나 그 날 낮 동안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과 심지어는 하인이나 일꾼들에게까지 아주 부끄러워하고 창피스러워한다. 그러나 함께 살게 되고 친밀해지면서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와 남편과 심지어는 하인이나 일꾼들에게까지 '비켜요, 당신들이 무얼 알아오'라고 말한다."

<앙갓따라니까야> 제4권 <머느리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다. 머느리의

다시 온 한 통의 '편지'

법정 스님 '오두막 편지' 개정판

법정 스님이 오두막에서 편지를 썼다. 수신인은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 편지를 읽었다. 저마다 자신에게 보낸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생각하고 느껴야 하는 것들, 편지 속에 그것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오두막 편지
법정 스님 지음
이레 | 9800원

1999년 출간된 <오두막 편지>는 그렇게 세간에 회자됐다. 그리고 2007년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왔다.

개정판인 이 책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 8년 전 이 책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서랍 속 깊이 간직해 둔 그 옛날 일기를 꺼내보듯 다시 한 번 읽어보라. 이 책을 읽지 못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꼭 받고 싶었던 편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읽어보라. 예전과 지금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만나고 싶다면...

무질서 속에서 질서찾기

고영섭 시집 '흐르는 물의 선정'

시인은 늘 길을 떠난다. 6년 만에 다시 떠난 길. 첫 시집 <몸이라는 화두>에서 허리를 굽혀 세상을 바라보았던 고영섭 시인. 그가 꿈틀거리며 떠나고자 했던 목적지는 어디일까.



흐르는 물의 선정
고영섭 지음
연기서 | 8000원

시인은 여섯해 만에 낸 두 번째 시집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의 화두는 '몸'로부터 '말'을 거쳐 '몸'로 향해가고 있다. 이 셋 모두는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소통하고 있다. (중략) 삶은 나와 너, 우리와 그를 사이에서 길항하면서 무질서 속의 질서인 혼돈 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말이다"

섬세하게 느껴지는 시인의 불교에 대한 깊이, 불교 학자(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로서 학(學)과 시(詩)를 병

yosiamun.com 추천도서

- 하루의 행복 세프라 코브린 피렐, 9000원, 경성리인
 - 대중찬갈성 무비스님, 9000원, 불광출판부
 - 티베트 불교입문 탈렉 린 토포체, 1만6000원, 청년사
 - 개구리가 참선을 한다 황명찬, 9800원, 지혜의나무
 - 마음의 불을 꺼라 브랜다 쇼샤너, 9000원, 정심세계사
- 도서주문 (02)2004-8219

선사들의 말 한마디에도 가르침이

도우 스님이 겪고 들은 선사들 일화 정리

여름 결제 기간 중 직지사 천불 선원에서 운봉(雲峰) 스님을 초빙해 상당법문을 듣게 됐다. 그때 운봉 스님이 주장자를 가져오라 하니, 원주가 원주실에 있다고 하기에 주장자를 가져다 드렸다. 그랬더니 운봉 스님이 "이 주장자 어디서 가지고 오셨고?" 하시기에 "원주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주장자로 내리치시니,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나" 생각하게 됐다.

선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그대로가 가르침이다. 그 한 순간에 깨치기도 하고, 평생의 화두가 되기도 한다.

도우(道雨) 스님은 그 당시를 떠올리며 "만약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면 주장자를 올리고 '법문을 하시오' 하였을 텐데..." 라고 책 서문에 적고 있다.

2005년 입적한 도우 스님은 청담·성철 스님을 모시고 수행했으며, 두 스님을 축으로 1948년 봉암사 결사가 본격화자 한국불교의 정신을 새롭게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이에 참여했다.

이 책은 도우 스님이 구전돼 오던 선사들의 이야기를 기록 또는 입으로 전한 것을 방남수 작가가 엮은 것이다. 재미도 교훈도 주는 것이 선 이야기다. 읽다보면 마치 이야기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인도, 중국, 한국, 일본 선사들과 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교해보는 것이다. 네 나라별로 구분해 각 나라의 선사들에 얽힌 이야기들이 전개돼 있어 선에 대한 역사와 사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명우 기자



뜰 앞의 잣나무
도우 스님 화남 | 1만원



가을밤의 춤
적음 스님 홍익21 | 1만2000원

수행길에서 건져올린 시와 수필

적음 스님의 연작시와 아름다운 추억담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슴에 와 닿는 많은 느낌들은 시나 수필로 쓴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자신의 느낌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남에게 보다 감동적으로 그 느낌을 전할 수 있으니까. 하물며 고뇌의 근원을 깨부수는 수행의 과정에서 가슴 말바닥을 채우는 느낌들을 기록하는 일이란 그 자체로 송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적음 스님(봉화 일소산 주지)이 그런 느낌의 말바닥을 시와 수필로 정제하여 <가을밤의 춤>으로 묶었다.

'古寺詩集'과 '유적' 등을 주제로 한 연작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10편으로 구성된 연작시 '고사시집'은 흥련암 간월암 등의 사찰을 묘사하고 있다. 단순한 풍경 묘사가 아니라 성불의 염원이 깃든 수행자와 도량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자리에서 어우러지는 경지를 탐구하고 있다. 쉬운 언어들로 깊은 수행의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 적음 스님의 시가 갖는 맛이다. '유적' 역시 30편으로 구성된 대작이며 구도의 열원으로 자연과 삶의 근원을 포착하고 있다.

적음 스님의 산문들은 경쾌하다. 어릴 적 가난하게 자란 이야기에서 출가 이후의 기행(寄行)까지. 다양한 경험에서 다양한 깨달음의 힘으로 발전하는 과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기쁨사로 동진 출가해 전국을 떠돌며 구도행각을 하다가 서라벌에 문장과에서 문화 수업을 한 적음 스님은 <소요집> <저녁에> 등의 시집과 <저문 날의 목판화> 등의 산문집을 냈다.

임연태 기자 yllim@buddhapia.com

도자기 불상 조성 전문기업 경 동 요

천불 · 삼천불 · 만불

불상크기 : [자재질 : 도자기(백)]



지장 보살님



관음 보살님



지장 보살님(여의주)

경동요는 삼보에 귀의 하는 마음으로 도자기 불상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으로 뭉쳐진 경동요는 20여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대덕스님들께서 원하시는 불사에 맞추어 불상을 조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대표 전우경 황장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고척1리 329-1번지
● 전 화 : (031)638-4531 (주간)
 (031)637-8789 (야간)
● 휴대폰 : 011-765-4531



석가모니부처님



지장 보살님

바로보인의 책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혀주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제중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았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파 우주생명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달이 실현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자 모집

복(福)중에서 발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 출가하여 사홍서원의 원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 1)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5세 이상 55세 이하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사유 없는자
 - 조계종 중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2) 연락 이메일 : muryangsa@empal.com
-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